

연구 윤리 교육

(연구부정행위 소개)

유기성 자원학회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와 연구부정행위

- 윤리란 사람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로서 법과는 다르게 사회 구성원간의 자율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켜지는 일종의 행동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윤리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 및 행동 등을 말한다.**
- 연구윤리는 사회적 윤리와 비슷하지만 연구자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범위가 제한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 윤리가 구성원간 암묵적으로 통용되고 존중되고 있는 것처럼 연구 윤리 또한 연구 구성원 스스로가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

- 대학 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대학 등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대학 등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대학 등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 판단하는 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대학 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대학 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대학 등은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 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 (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표절: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유형 1-1: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개념(용어), 어휘(구), 문장, 그림, 표, 사진,

데이터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활용

사례: 본문의 출처가 없는 경우(14년도 보고서 연구윤리 정밀검독본)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문화산업은 더욱 빠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전망기관에 따르면 00 문화산업은 2000~00년까지 연평균 00% 성장이 예상되며, 특히 00은 00%가 넘는 고속성장을 거듭할 전망이다.

- ⌘ 이 유형은 전형적인 표절로 간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 정밀검독 후 보고서 발간 시 'KPMG(2014), p. 2.' 라고 출처를 표기하였음.
- ⌘ 본문과 각주에서 타인의 저작물 및 통계, 발표, 회의 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직접인용을 하면서 별도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혹은 부가 설명을 위한 각주에서 출처표기가 안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함.
- ⌘ 또한 학계 수준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론(용어, 사건)일 수 있으나,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자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함.

연구부정행위 (표절)

➤ 표절: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유형 1-2: 타인이 쓴 글을 그대로 쓰지 않고 저자가 말바꿔쓰기 또는 요약은 했지만,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사례: 말바꿔쓰기/요약에 출처가 없는 경우(13년도 보고서 연구회 평가)

4) WB 43

World Bank는 환경보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43개의 환경 친화적인 품목을 분류하였으며, 이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상품들(Climate Mitigation Goods)은 환경상품에 대한 교역장벽을 완화 및 철폐하기 위한 각종 국제적 협상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보통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상품으로 인식되는 환경상품의 수출은 선진국과 일부 개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후완화 상품들의 자유화에 따른 이득이 이러한 국가들에게만 귀속될 것이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5) Other(ICTSD)

ICTSD는 주요한 기후완화 기술 및 관련 상품을 구분하기 위해서 분류되었으며, ICTSD와

㉞ 보고서의 환경상품에 대해 p. 00 각주에서 출처를 표기하였으나, pp. 00-00에서는 각 리스트에 포함되는 환경상품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 외(2013)의 문헌을 순서만 바꾸어 그대로 가져다 쓰기도 출처표기를 하지 않음.

연구부정행위 (표절)

➤ 표절: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유형 1-3: 타인이 쓴 외국어 논문이나 저서의 일부 또는 상당부분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사례: 번역문에 출처가 없는 경우(13년도 보고서 연구회 평가)

미국은 1980년 자유로운 심해저 개발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국내법인 「심해저광물자원법 (DSHMRA: Deep Seabed Hard Mineral Resources Act)」을 제정해 미국 기업에 대해 심해저의 광물자원에 대해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UN 해양법

-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나 일부에만 표기하였음.
- ⊆ 저자는 보고서에서 원문을 신발적으로 번역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술하였으나, 번역을 하였음에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부분이 다수 나타남.

연구부정행위 (표절)

➤ 표절: 재인용 출처를 누락한 경우

유형: 2차 문헌표절: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를 표기한 경우

사례: 2차 문헌 표절: 재인용(13년도 보고서 교정지)

[본문]

연가스 등 원자재가 아닌 국무편드의 자산 대비로는 69% 수준이다.

23) 21세기 경제보도(2013. 8. 16); 『뉴스핌』(2013. 8. 16), 「 6월 미국채 보유량 전달
보다 215억 달러 줄어」에서 재인용

[참고문헌]

조운선. 2013. 「 6월 미국채 보유량 전달보다 215억 달러 줄어」. 『뉴스핌』(8월 16일).

- ㉞ 조운선 기자 가 뉴스핌 이라는 신문에 위 제목의 기사를 낸 것으로 보임. 21세기 경제보도(2013. 8. 16) 가 원자료, 뉴스핌 이 재인용한 자료임. 원자료와 재인용 기사 날짜 확인이 필요하며, 참고문헌에 원자료 기사도 추가되어야 함. → 21세기 경제보도(2013. 8. 16), 재인용: 조운선(2013. 8. 16) or 「기사명」(연월일)
- ㉞ 저자가 외국인이 쓴 1차 문헌을 직접 보고 그대로 번역하거나 말바꿔쓰기 또는 요약을 하지 않고 2차 문헌에 인용된 내용을 그대로 쓸 때,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을 출처표기한 경우도 해당

연구부정행위 (표절)

➤ 표절: 인용된 양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유형: 양적·질적 주종관계: 인용된 부분에 출처를 표기했지만 본인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아이디어나 어구 및 문장을 가져온 경우

사례: 양적·질적 주종관계

표절 의심 부분:

- 김표절¹⁾

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하늘 아래에 있는 산이도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산이 없건만,
오를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산만 높다고 탓하는구나.

1) 양사언(연도 미상) 시조를 참고하여 작성.

표절 의심 부분 대상 원문:

- 양사언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ㄱ 고시조를 참고하여 작성했다고 출처를 밝혔지만, 저자의 창작물로 보기에 무리가 있음.

연구부정행위 (표절)

➤ 표절: 출처를 부분적 • 한정적으로 표기한 경우

유형: 부분적 • 한정적 출처표기: 타인 (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사례: 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13년도 보고서 연구회 평가)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한 국가의 거시경제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⁵⁶⁾ 또한 재정 측면에서 고령화로 인한 취업자 수 감소와 함께 성장 둔화가 겹쳐질 경우 이로 인한 세수 감소와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이와

56) 김양희 외(2010), p. 38.

ㄹ 보고서의 p. 00 마지막 줄에서 p. 00 12줄까지 김양희 외(2010) 보고서의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처음 3줄만 출처를 표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음.

연구부정행위 (표절)

➤ 표절: 출처를 포괄적·개괄적으로 표기한 경우

유형: 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 인용한 타인의 저작물 상당부분을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도 각각의 부분에 대한 출처 명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장 또는 절 제목 부분에만 특정 저작물을 인용 또는 참조했다고 표기하는 경우

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	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
<p>예) 1문단: 출처표기 2~4문단: 출처 미표기</p> <p>ㄹ 총 4문단을 인용하면서 1문단에만 출처표기를 한 경우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함.</p>	<p>예) 제2장은 000(2014)의 자료를 인용하여 구성함.</p> <p>ㄹ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전부/일부)을 그대로 가져다 쓸 경우 장 또는 절 제목에 출처표기한 경우로, 각각의 부분에 대한 출처 명시를 해야 함.</p>

연구부정행위 (**부당한 저자 표기**)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기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

사례: 부당한 저자 표기

김원로 · 이연구 · 박윤리 · 최준수

- ㉞ 보고서의 실제 집필진은 이연구, 박윤리, 최준수 3명인데, 김원로를 저자에 포함시킴.
- ㉞ 보고서의 실제 집필진은 5명인데, 정조교를 저자에서 제외시킴.

연구부정행위 (중복게재)

- 출처표기를 하지 않은 중복게재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한 부분이 자신의 이후 저작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 마치 새로운 것으로 오해하게 되는 경우

사례: 출처표기를 하지 않은 중복게재(12년도 보고서 연구회 평가)

미국의 석유 및 수입물질에 대한 내국세 사건에서 패널은 내국민대우조항이 경쟁관계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현재의 무역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무역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예견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중략 ... 내국민대우의무는 무역량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입량이 전혀 없거나 미미하여 회원국의 국내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전혀 또는 거의 없더라도 내국민대우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

- ㉞ 자신의 이전 저작물인 논문의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그대로 인용하였음.
- ㉞ 출처를 표기하였으나,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여기저기서 가져와 활용하면서도 어느 일부분만 출처를 표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누락하지 않았는지 주의가 필요함.

연구부정행위 (기타)

▪ 표기 오류 - 본문과 참고문헌의 표기 차이

사례: 단독/3인 이하 저자 & 4인 이상 저자 표기(14년도 보고서 교정지)

[본문]

“○○○(2012)은 ○국 기업의 전체적인 연구개발 현황, 특히 중국의 혁신 기업과 첨단기술 산업의 연구개발에 대해 살펴보고 정부와 기업에 대한 대응책을 도출하였다.”

[참고문헌]

○○○ 외. 2012. ○○○○. 연구보고서 00-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ㄹ 참고문헌에 따르면 본문은 ○○○ 외(2012)로, 참고문헌에는 모든 저자명이 기술되어야 함.
- ㄹ 만약 참고문헌에 같은 연도의 4인 저자 자료와 5인 저자 자료가 있을 경우, a/b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연구부정행위 (기타)

- 본문 표/그림의 자료가 참고문헌에 누락됨

사례: 본문 표/그림 자료의 참고문헌 누락(12년도 보고서 연구회 평가)

제은행)	은행업	프롬인베스트 뱅크	643	2009	인수
빔펠콤	통신	아르메니아, 아르연텔	600	2006	인수, 확대
알파뱅크	은행업	우크라이나, 알파뱅크(우크라이나)	577	2001	인수, 확대

주: ... 각 기업의 주요 특화 부문에 속하지 않는 프로젝트가 선정됨.

자료: Monitoring of Mutual Investment(MMI) ... Bank Center for Integration Studies
2012, Table No. pp. 35-36.

- ㄹ 본문 내주/표 · 그림/각주 등에서 언급된 문헌은 모두 참고문헌에 표기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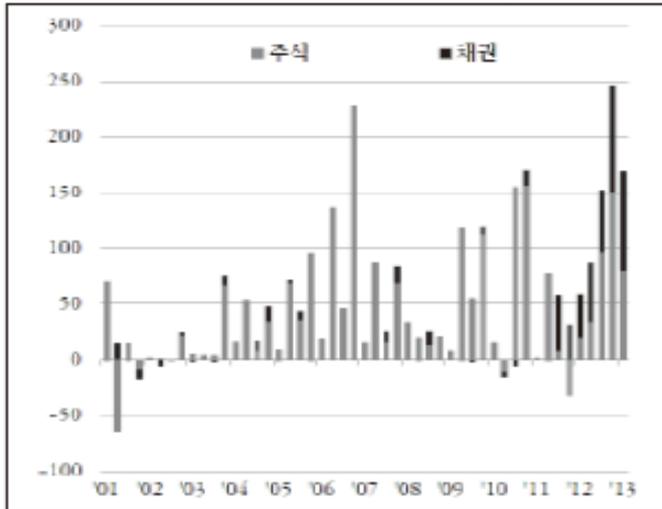
연구부정행위 (기타)

출처표기 통일성

사례: 동일한 자료의 상이한 출처표기(13년도 보고서)

그림 2-7. ○국으로의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 자금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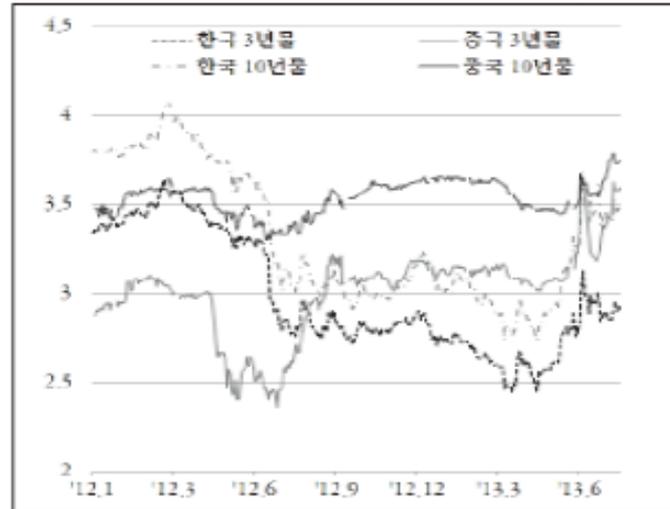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자료: CEIC DB(검색일: 2013. 8. 23).

그림 2-8. ○국과 우리나라의 국채금리

(단위: %)



자료: CEIC DB, 국제금융센터(<http://www.kcif.or.kr/>). (검색일: 2013. 8. 23)

ㄹ 양쪽 그림의 자료출처 표기방식이 통일되어야 함.